

“캐스퍼 등 연간 20만대 생산 노사상생해야 가능”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인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그 4년 후인 1769년 프랑스의 공병장교 니콜라 조제프 퀴노가 포차를 견인하기 위해 발명한 증기 자동차를 자동차의 시초라고들 한다. 1885년 카를 벤츠가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었고 아내인 베르타 벤츠가 105km의 장거리 운행을 하며, 자동차의 기능 점검 및 정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틀리프 다임러와 빌헬름 마이바흐가 가솔린 사륜차를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아르망 푸조 역시 자동차를 제작했다. 미국은 조금 늦게 듀리에 형제가 듀리에 모터 엔진을 개발하며 유럽 각국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자동차, 즉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만드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모터쇼’가 최초로 개최된 것은 1897년 프랑크푸르트에서다.

127년의 기간 동안 자동차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모터쇼의 인기가 최근 시들하다. 세계 5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 제네바 국제모터쇼는 120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고, 파리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도 기간을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오프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떨어져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효과도 낮은데다 치열한 경쟁 속에 새로운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업체의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CES(소비자가전쇼)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가 더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최첨단 IT로 무장한 ‘혁신의 융합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대수는 모두 2,613만4,000대에 이른다. 2023년 말 대비 18만5,000대가 증가해 인구 1.96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다. 일상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미국의 핸리 포드가 1913년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개발한 뒤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21년 전인 1903년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으로 미국 공사가 수입한 4인승 리무진이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다. 광주에

이달 중순부터 캐스퍼 50개국 수출 누적 생산 급속히 늘어날 것 부품업체 130개 중 광주·전남 24개 뿐...핵심기술 갖춘 기업 유치해야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광주 시사에 따르면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2년 광주에는 영업용 2대, 관용 1대, 자가용 1대 등 모두 4대의 자동차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기계 및 전자 장치의 종합·융합 완성체인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를 자국의 기술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국가는 10여 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최초 자동차는 1955년 6월 대한자동차(기아자동차 전신)의 ‘K-360’과 1955년 7월 시발(始發)자동차를 꼽는다. 정부는 1962년 5월 31일 ‘자동차공업 보호육성법’을 제정하며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3월 ‘야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할 정도로 자동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쓰비시 자동차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차체와 엔진 변속기에 대한 기술을 얻어내 포니를 생산한 것이 그 8년 뒤인 1975년 일이다.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오던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해외 수출에 사활을 걸었고, 국내 생산단가가 급증하면서 현지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1995년 9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13개 해외 생산기지를 조성해 367만여 대를 생산, 전체 생산 대수(730만여 대)의 절반을 맡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은 이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공장 부지를 내주는 등 전력

을 쏟고 있다. 자동차 공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략 6,000개 이상 1만5,000개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며, 운송·수출·판매·수리 과정에서 각종 서비스업이 자리를 잡게 된다. 한 마디로 해당 지역의 경제 지형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대기업 분사 및 생산기지가 절실했던 광주는 지역 경제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함께 2021년 9월 캐스퍼 양산에 들어간 보물 같은 자동차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안았다. 노동·기업·시민·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합의해 ‘적정 임금·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다.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전까지는 노동조합 대신 상생협회를 통해 임금 등 근무 조건을 협의하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가 주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직원 일부가 이 같은 약속을 어기고 노조를 구성하면서 갈등 양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역 내외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1998년 르노삼성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에 국내 세워진 완성차 공장인 GGM의 성공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외 생산기지 구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눈을 국내로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2023년 12월에 취임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이사는 왕조나 기업의 기반을 닦는 마지 ‘개혁군주’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 초창기 단단했던 합의의 정신과 약속의 취지가 점차 느슨해지고 희미해진 시점에 등장한 그는 GGM의 확고한 미래를 설정해 직원과 지역민에게 제시하고, 지금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며 복잡하기 짝이 없는 방정식을 왜곡하지 않고 정리해 나가고 있다.

강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광주로 ‘유학’ 왔다가 진흥중학교와 조선대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가 서강대를 나왔다. 대학 졸업 후 당시 세계자동차 회사 중 10위권 밖에 있던 현대자동차에 1986년 입사하였다. 이후 35여 년간 근무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그는 경영전략실장, 기획실장, 튀르키예 법인장, 중국 법인장을 거쳤다. 마음속 깊이 ‘현대차 맨’이다. GGM을 광주 경제의 또 다른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렇게 지원자가 몰릴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GGM은 최근 하반기 공채에 나섰다. 46명 모집에 1021명이 지원, 평균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만큼 우리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심하고 그래서 지역민의 기대가 높아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들었다. 적정한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해 이상생형 일자리를 꼭 지켜내 GGM이 광주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생형 일자리’, 말은 쉽지만 정말 실천하기는 어려운 명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상의 “GGM 노조 35만대 생산까지 노조활동 안해야”

쟁의조정 신청 등 우려 표명

지역 최대 경제인 단체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대해 출범 당시 작성했던 ‘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는 6일 한상원(사진)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GGM은 애초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결국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상생정신’을 되새기며 반드시 광주시민의 염원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일자리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GGM은 2019년 출범 당시 ‘노사민정’ 4주체가 차량생



산누적 35만대 달성시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제로 근무 환경 및 근로조건을 상생협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노조가 만들어졌고 7월 상부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에 이어 최근 교섭결렬 선언과 함께 노동당국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광주상의는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달 중 예정된 전기차의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GM의 존립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상의는 특히 노조의 무리한 쟁의조정 신청을 비판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GM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지키고 노조가 상생협정서 취지를 되새겨 ‘몰리셔’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향후 상생형 일자리의 확장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광주 산업발전을 위해 노조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또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상생정신’을 되새기며 반드시 광주시민의 염원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KJB중진공 정책자금 통장’ 출시

광주은행은 6일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직접대출금 입금 전용계좌인 ‘KJB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JB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은 중진공의 용도집계에 필수적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 초과 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의 수령 및 집행에 필요로 개설해야 하는 통장이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기 기업, 재도약이 필요한 기업 등 각 단계별로

기업의 특성 및 정책 목적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정책자금 외에는 입금이 제한되며, 출금 역시 사전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처를 검증한 뒤 출금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모에 선발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며, 신규 계좌 개설 시 서류와 중진공 지원예정 통보서를 지참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부장은 “지역 내에서 중진공 정책자금을 수급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계좌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농어촌공사 올 신입사원 256명 공개 채용

오늘부터 16일까지 원서 접수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5급 일반직(행정·토목·지질·기계·전기·건축·전산·환경)과 6급 기사직(토목·기계·전기·건축) 등 12개로, 각각 5급 181명, 6급 75명을 채용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별도로 개설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의 공고문과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국가 방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점제도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9일 ‘실패학 콘서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9일 전남 콘텐츠페어에서 ‘2024 실패학콘서트’를 개최한다.

‘실패학콘서트’는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보내 창작자 및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콘텐츠 관련 분야의 유명 인사를 초청해 진솔하게 그들의 실패담과 극복의 과정을 공유하는 강연형 토크 콘서트이다. 이번 강연에는 유튜브 채널 엔조이커플을 운영하는 개그맨 손민수와 임라라가 함께 ‘콘텐츠 크리에이터 엔조이커플에게 묻는다’ 주제로 1세대 개그맨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실패를 즐기는 법에 대해 청중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강연 이후에는 참석자들 대상으로 ‘엔조이커플’과 질문-답변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강연은 10월 9일 오후 4시 전남콘텐츠페어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 접수는 구글 폼(forms.gle/5faiV44jptSWeAvaA)을 통해 진행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로또복권 (제 114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0	22	29	31	38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79,823,938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4,935,517	83
3	5개 숫자일치					1,363,124	3,345
4	4개 숫자일치					50,000	158,343
5	3개 숫자일치					5,000	2,644,989

기아, KIA 타이거즈 정규리그 우승 프로모션

더 뉴 EV6 증정 등 경품 행사

기아가 KIA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더 뉴 EV6’를 증정하는 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기아는 우선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를 갖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의 기아 지점, 대리점, 드라이브센터를 방문해 해당 거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경품은 추첨을 통해 ▲더 뉴 EV6(1명) ▲더 기아 EV3 기아 플렉스 1개월 이용권(2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홈 유니폼(50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벨크로 모자(100명) ▲기아 타이거즈 레시 인형(200명)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고객 전원에게 CU 모바일금액권을 증정하고 참여 고객 3000명을 선정해 계약금 지원

쿠폰을 제공한다. 기아는 또 ‘기아 EV 바로알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닷컴 내 해당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전기차 안전 관리·보장 ▲구매 혜택 ▲충전솔루션·멤버십 등 기아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상담 정보를 등록하면 전기차 계약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기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EV3의 전용 특별 할부 프로그램 ‘이-밸류(E-Value)’를 승용 전기차로 확대 운영한다.(니로 플러스 제외)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